



##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10시
- 2부: 11시 30분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양 ..... 다같이

1. 내 평생에 가는 길
2.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 도 ..... 다같이

- 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와 섬김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소서.
- ②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 ③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소서.
- ④ 감염되어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소서.
- 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 ⑥ 교단 내 교회들 안에 지속적으로 영적 변화들이 있게 하소서.

성경봉독 ..... 서일원 목사  
시편 51편 1-2절 (구약 p.839)

설 교 ..... 설교자  
“예배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3)”

헌 금 ..... 다같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광 고 ..... 사회자

축 도 ..... 서일원 목사



## 수요일에배 Wend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잠정 중단합니다.



##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 “십자가 안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성경의 내용을 너무도 모릅니다. 더구나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고수하는 모습은 결국 사랑과 화평의 장이 되어야 할 장소를 다툼과 분열의 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교인들이 사회문화 구조와 가치관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저명한 신학자요 목사인 스프로울은 “회심을 체험했다고 믿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회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R.C.스프로울, 「기독교의 핵심 진리 102가지」, 13).

스프로울은 기독교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안이한 신앙’을 꼽습니다. “안이한 신앙은 고대 율법폐기론의 한 형태다. 안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즉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스프로울, 1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율법 대신 마음에 새긴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는 “그대는 하늘나라로 인도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십자가 안에 하늘의 감미로운 향기가 있고, 십자가 안에 마음의 강건함이 있고, 십자가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십자가 안에 고상한 미덕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 완전한 성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토마스 아 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이에마, 134).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면서 신뢰와 소망으로 인도하시기에 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안정하고 막연한 길이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십자가 안에”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사회문화 구조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 기도제목 Prayer

###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3. 용기주셔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Kalinovo 교회 - Pavol Bomba 목사

###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12일 (주일)	교회 창립	1. 16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소서. 2.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13일 (월)	코로나 19	1.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게 하소서. 2.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에게 함께 하소서.
14일 (화)	슬로박	1. 영적으로 침체되어진 사회 전반이 복음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2. 자본주의체제 속에 매몰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15일 (수)	형제 교단	1. 교단 임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2. 교단 소속 30명의 전체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복음전파에 힘쓰게 하소서.
16일 (목)	가정	1. 가족들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좇아 살지 않게 하소서. 2.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17일 (금)	유럽	1. 혐오와 갈등이 사라지고, 소통과 배려가 넘치게 하소서. 2. 무신론이 득세하는 유럽이 다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18일 (토)	예배	1.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의를 깨달아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7월 12일(주일)	사 2장 1 - 22절
7월 13일(월)	사 3장 1 - 12절
7월 14일(화)	사 3장 13절 - 4장 6절
7월 15일(수)	사 5장 1 - 17절
7월 16일(목)	사 5장 18 - 30절
7월 17일(금)	사 6장 1 - 13절
7월 18일(토)	사 7장 1 - 9절

###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7,8월 방학
어린이 주일학교	
마더와이즈	
오후 성경공부	

###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내
큐티나눔모임	7,8월 방학
수요기도회	코로나19 관련 잠정 중단



##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소독, ② 마스크 착용.
- 창립 16주년 기념주일  
오늘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6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택구매 투표  
오늘까지 사택구매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직 세미나  
일시: 8월 15일(토) 오전 10시  
강사: 이창순 목사(서울 서부침례교회 담임)  
-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M.Div)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전공(Th.M)  
- Southwestern Baptist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 줌(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장기대출 도서 반납 요청  
장기 대출하고 있는 도서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위원 | Volunteers in Month

※ 코로나19 완전 해제 이후 봉사위원을 게시하겠습니다.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7월 12일  
(28주)

KÓREJSKÝ ZBOR CÍRKVI BRATSKÉ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http://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